발 간 번 호
경북교육 2020-21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교육

2020 **VOL 104.** 여름호



경상북도교육청
Gyeongsangbuk-do Office of Education

Cover Story



주니어 ROTC 대원이 6.25 참전 학도의용군께 감사의 꽃을 달아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팬데믹(Pandemic)으로
전세계는 엄청난 위기에 빠졌습니다.
경제적 위기와 언택트, 온라인, 탈세계화 등
문명의 반성과 함께 생존의 생태학을 고민하게 합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포스트 코로나의 핵심도
역시 교육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세상을 살아갈 우리 아이들
정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정답이 없는 문제를
상상력과 새로운 관점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도와주세요.



vol 104 2020 여름호

발 행 일	2020. 8.
발 행 처	경상북도교육청
발 행 인	경상북도교육감 임종식
총 괄	소통협력관 최선지
기 획	소통기획담당 장학관 김현광
편 집	주무관 권순미
주 소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511
연 락 처	054-805-3063
홈 페 이 지	www.gbe.kr
디자인,인쇄	기획출판서경(054-852-1532)

※ 경상북도교육청에서 발행하는 <따뜻한경북교육소식지>는 http://www.gbe.kr 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오른쪽 지면 상단에는 시각장애인 및 외국인들을 위하여 보이스아이 코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무료 소식지(비매품)입니다.

VOL 104. 여름호

목 차



특집&기획

04 - 06
보훈의 달 기념

현장 소식

07
알림판

08 - 13
학부모리포트
- 랜선은 감사를 싣고
- 안전한 학교를 꿈꾸며
- 나눔 리더와의 인터뷰

14 - 19
학교소식





정책 소식

20 - 21
고교학점제

22 - 23
자유학기제

24 - 25
「경상북도교육청 메이커교육관」을 소개합니다.

26- 27
경북 학생 참여형 수업 이렇게 합니다.

공감&소통

28 - 29
칭찬합니다: 힘내라 학교, 힘내라 경북교육!

30 - 31
함께하는 교육위원회



따뜻한 경북교육 소식에 대한 원고와 학생리포터 기사를 기다립니다. 홍보하고 싶은 사례, 학교소식, 미담이 있으신가요? 교직원 및 학부모 글·사진·그림 등을 소식지 담당자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메일: imymemine@gyo6.net 문의: 054-805-3063

KDRI 경상북도 교육청
www.gbe.kr



호국보훈의 달

6.6. 현충일과 6.25전쟁일, 6.29. 제2연평해전 등이 있는 6월은
'호국보훈의 달'로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달입니다.

그럼 6월 1일은 무슨 날일까요?

바로 '의병의 날'입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발적으로 일어난 의병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이들의 애국,애족 정신을 발전시켜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기 위해 의병의 날로 제정하였습니다. 수차례 국난의 시기를 이겨낸 순국선열의 정신을 이어받아 코로나19도 함께 이겨냅시다.

경북 의병 독립운동의 첫 장을 열다.

영국의 종군기자 매켄지는 '의병은 정의를 위해 일어난 군대'라고 하였고, 백암 박은식은 의병은 민군으로 국가가 위급하면 '의'로써 일어나 조정이 명하는 징발을 기다리지 않고 종군하여 분연히 대적하는 자라고 정의하였다. 이렇듯 의병은 승패나 이해득실보다는 '일어나야 해서 일어난다'라는 당위성과 명분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한국에서 의병은 국가와 민족이 위급할 때마다 일어났다. 특히 구한말 의병이 보여준 백절불굴의 의리 정신은 그 뒤 50년 넘게 이어진 독립운동의 밑거름이 되었다. 구한말 의병투쟁사에서 경북은 대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한말 의병의 효시로 평가되는 갑오의병이 일어난 곳이 바로 경북의 안동이기 때문이다. 1894년 6월 21일 일본군이 경복궁을 침입하여 왕실을 농락하고 국권을 무너뜨리는 갑오변란이 일어나자 7·9월 사이에 안동을 중심으로 한 경북 북부지역과 평안도 상원 등지에서 의병이 일어났는데 이를 갑오의병이라고 부른다. 이 가운데 서상철이 이끈 안동 의병은 51년 동안 펼쳐진 독립운동의 출발점이었다.

경북 의병은 전국 의병항쟁의 한 축을 이루면서 의병항쟁 전기간에 걸쳐 활발한 항일전을 전개하였다. 의병 중심 무대도 전기에는 안동 예안, 봉화 등지를 주축으로 한 경북 북부지역에서 중기, 후기에는 영양, 영덕, 울진의 신돌석 의진 활동지, 영천, 포항의 산남의진 활동지, 그리고 문경의 조령과 풍기 죽령 일대의 이강년의진 활동지 등으로 넓혀갔다. 이들은 독립운동의 서막을 열었을 뿐 아니라, 일제 강점 직후에는 일부 인사가 자결 순국으로 저항하기도 하고 국외로 망명하여 무장항일투쟁을 펼치기도 하였다.

자정 순국

순국투쟁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불의에 맞서는 것을 말한다. 안으로는 나라를 지키지 못한 책임을 자신에게 물은 것이고 밖으로는 일제 강점의 부당성에 대한 가장 강렬한 저항이었다. 스스로 바르게 처신하여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다는 뜻에서 자정순국이라고 한다. 을사늑약 이후 전국에서 목숨을 끊은 순절자는 90여명에 이른다. 그 가운데 이름과 출신이 정확하게 알려진 인물을 70여 명이고, 행적이 증명되어 독립유공자로 포상된 인물은 61명이다. 이들 가운데 경북 사람이 무려 19명을 차지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가장 많다. 순국자들은 자신은 비록 죽지만 끝까지 뜻을 꺾지 말라는 유지를 남겼고, 남은 사람들은 새로운 투쟁의 길을 이어갔다.

혁신유림의 애국계몽운동

전통유림이 성리학적 질서를 유일한 정통으로 간주하였다면 혁신유림은 성리학적 바탕 위에 서양문화의 이로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인식을 가졌다. 이들은 협동학교, 교남교육회 등 학교를 세워 신학문을 알리고, 보수적인 유림사회의 사상적 변모를 이끌어냄으로써 이후 독립운동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데 힘을 보탰다. 또한, 대한협회 등 지회를 만들어 국가의 유신과 개혁을 추진하는 정치적 결사체로 국민의 정치 참여를 표방하였다. 사회주의 이념을 가진 청년 유림들은 중소지주 출신임에도 소작투쟁을 하였으며, 백정들의 신분해방운동인 형평운동마저 적극 지원한 사례가 경북에서 나왔다.

망명길에 오른 독립운동길

나라가 무너진다는 판단이 서자 독립전쟁을 펼칠 군대를 길러내야 했다. 하지만 이는 국내에서 불가능한 일이므로 망명길을 택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계몽운동이 실력 양성에 초점을 두었다면 경북 사람이 펼친 계몽운동에는 무장 투쟁이 포함되어 있다. 안정된 삶의 포기, 문중의 희생을 각오하고 망명길을 선택하였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신흥무관학교, 백서농장에서 훈련된 독립군들은 서로군정서라는 군대를 조직하여 전투에 참여하고, 의열투쟁 등 여러 방면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안동 출신의 백하 김대락과 석주 이상룡, 동산 류인식, 일송 김동삼 등과 선산 지역 의병장 왕산 허위, 조선 말 성리학의 대가 한주 이진상의 아들인 성주 출신의 한계 이승희 등이 대표적인 이들이다. 이들 중에는 가족과 일족들이 함께 망명하여 독립운동을 이어갔다.

3.1.운동과 유림단 의거

1919년 3월 1일,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활발한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이때 많은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참여하였다. 그 중 영양 출신의 남자현은 남편이 의병에 나아가 전사하자 3.1운동에

참여하였고, 망명하여 독립운동에 헌신하다 생을 마쳤다. 당시 경북 지역에서는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유림단 의거이다. 3.1운동을 주도한 이들이 천도교와 불교 및 기독교와 관련된 인사가 주축이었던 것에 유림들이 깊이 반성하고 독립운동을 지지하면서 파리강화회의에 독립청원을 한 거사가 일어났다. 이는 성주 지역 이진상의 제자와 후예인 면우 곽종석, 심산 김창숙 등이 주도한 것으로 '제1차 유림단 의거'라고 부른다. 1925~1926년에 다시 김창숙이 유림 조직을 통해 군자금을 모금하였는데 이를 '제2차 유림단 의거'라고 일컫는다.

의열투쟁

의열투쟁은 정의 실현을 위해 폭력의 수단을 동원하는 것으로 일본 관료와 기관 시설 및 친일파 등이 주 대상이었다. 의열단은 당시 의열투쟁을 이끌던 대표적인 단체였다. 1919년 만주 지린에서 결성되었으며 중국 각지에서 큰 활약을 보이며 항일투쟁을 선도하였다. 경북 출신의 많은 인사들이 의열단에 참여하였는데 특히 경북 지역에서는 1924년 안동 출신의 김지섭이 펼친 일본 왕궁 앞 이중교 의거가 대표적이다. 192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1927년 장진홍의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파의거가 유명하다. 1940년대 들어서는 지역사회의 평범한 청년, 학생층이나 운동가들에 의한 게릴라성 항일의거들이 시도되었다. 청도의 동진회, 안동의 조선독립회복연구단, 경산 결심대 항쟁이 그 특징이다.

붓을 통한 투쟁

애국계몽운동을 전개했던 류인식은 일제 강점 후 망명했다가 잠시 귀국한 틈에 체포되어 풀려난 이후 「대동사」라는 역사서를 저술한다. 영주 출신의 송상도는 경술국치 이후부터 세상을 뜰 때까지 전국 각지를 누비며 애국지사 207명의 약전을 담은 「기려수필」을 저술하였다. 이상화와 이육사는 민족문학, 항일문학의 정수이다. 1940년대 대부분의 문인들이 친일의 물결로 나아갈 때 이들은 민족의 양심을 지켰다.

자료참고 : 경북의 혼, 한국의 정신 창 / 경상북도



6.25! 낙동강 방어전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다.

한국 현대사는 가슴 벅찬 해방으로 출발하였으나, 곧 분단과 전쟁으로 이어지면서 고난이 이어졌다. 낙동강 방어전은 6·25전쟁에서 최대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기틀을 결정짓는 전투였다. 낙동강 방어전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북한군의 기습공격으로 8월 1일 상주-안동-영덕, 8월 중순에는 왜관-군위-영천으로 후퇴하였고, 영천마저 빼앗기면서 대구와 경상남도만 남는 위기를 맞았다.

왜관에서 포항과 영덕을 잇는 최후 방어전은 50일 넘는 동안 하루에도 수 천 명씩 생명을 바쳐야 하는 현장이었다. 서쪽으로부터 곳곳에서 낙동강 돌출부 전투, 왜관-다부동 전투, 신녕-영천 전투, 안강-기계 전투, 영덕-포항 전투, 장사상륙작전 등이 펼쳐졌다. 그 어느 곳에서나 전투를 치르는 군인은 말할 것도 없지만 포항전투에 참가한 학도의용군의 기여와 희생은 숭고하기 이를 데 없다.

장사상륙작전이 궁금하다면?

인천상륙작전 성공을 위한 북한군의 주의 분산과 보급로 차단하고 후방을 교란, 적을 퇴치하기 위해 경북 영덕군 남정면 장사리에서 벌어진 상륙작전입니다. 772명의 학도병, 그들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국내 유일의 바다 위 호국 전시관(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면 동해대로 3560)인 장사상륙작전전승기념관이 2020년 6월 5일 개관하였습니다. 가족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이곳에서…

출처_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관 홈페이지



어린이들의 안전 함께 지켜요.



올해 3월 25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고 어린이 사망 및 상해를 입힌 가해자에게 가중처벌이 더해지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일명 민식이 법)이 시행되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첫째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이 강화되었다. 첫째 과속단속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되고, 횡단보도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 표기 등을 우선 설치 한다.

둘째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부주의로 사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상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낸다.

어린이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관계부처는 물론 학부모들의 동참도 필요하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① 도내 어린이집(2곳), 초등학교(46곳)
- 통학로·과속방지턱 설치
- 안전 표지, 미끄럼 방지 포장 확충



②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66) 설치, 신호기(81) 설치

③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학교 (50곳) 보·차도 분리 사업 진행

2021학년도 대입 전형 특징과 대비 전략은?

경북진학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홈페이지 http://www.gbe.kr/jinhak/
네이버 밴드 '대학가는길, 경북진학지원센터'

① 대입자료, 뉴스레터 경북 꿈지니를 받아보세요(격월 제작)
② 대입 진학정보 동영상 제작 및 배포 (경북교육청 유튜브 맛쿨멋쿨 TV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③ 진로·진학 로드맵 및 나만의 학생부 만들기 제작 등

경북교육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세요?

경북콜센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 이용분야

민원인 ➡ ▸ 교육민원 **054)1396** / ▸ 제증명 **054)805-3645** ➡ 상담사 연결

상담시간
평일(월~금) 오전 9시 ~ 오후 6시

▸▸ 상담분야
- 학생 전·편입학 (입학, 전출, 진로변경, 귀국학생편입학, 기타 학적처리)
- 초등돌봄 및 방과후교육(지원자격, 운영시간 등)
- 교육비 지원(무상교육, 한부모 및 다자녀교육비 등)
- 시험정보(교원, 일반직, 교육공무직, 검정고시 등)
- 학교폭력예방 및 생활지도 (긴급조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관련, 심리상담기관 안내 등)
- 기타 교육관련 상담

랜선은 감사를 싣고~

선덕여중, 온라인으로 만나는 스승의 날

정진희
제2기 학부모 기자

5월 15일 경주 선덕여자중학교(교장 권우택)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스승과 제자가 대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전하였다.

많은 학생이 선생님들께 평소 전하지 못했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영상을 제작했으며, 다 같이 스승의 은혜를 부르면서 대면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달랬다. 평소 애니메이션에 소질이 있는 학생의 애니메이션 영상을 시작으로 영상 편지글과 카드섹션 및 다양하고 재미난 감사 인사말이 담긴 동영상들이 선생님들에게 잔잔한 감동과 보람을 느끼게 해주었다.









특히 한분 한분 선생님을 위한 이름표 디자인은 과목 선생님의 특색에 맞게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더해져 선생님의 반응이 뜨거웠다.

기성세대와 다른 Z세대답게 참신하고 다양한 생각들이 온라인 영상으로 잘 담겨 있었다.

3학년 엄○○ 학생은 “우리를 위하는 선생님들의 열정과 노력을 선생님들의 원격수업을 통해 느낄 수 있었다. 이런 선생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전할 방법에 대해 친구들과 고민하던 중 선생님들처럼 영상을 제작해서 보여 드리는 건 어떨까 싶어 시작하게 되었다. 직접 얼굴을 보고 감사의 인사를 전하지는 못하는 건 아쉽지만 이렇게라도 감사의 인사를 드릴 수 있어 만족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학생들의 마음을 전달받은 교사들은 “코로나19로 학생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큰 스승의 날이지만 학생들의 온라인 영상을 통하여 교사로서의 보람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말하며 색다른 스승의 날 행사에 힘이 난다는 말씀을 이어갔다.

선덕여중 학생들과 선생님들 사이에 오가는 진심 어린 사제 간의 사랑이 온라인 등교 속에서도 훈훈하게 오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온라인 개학으로 수업 영상 제작에 힘쓰시는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함으로 보답하는 선덕여중 학생들의 온라인 영상을 통하여 아름다운 사제 간의 사랑이 랜선을 통하여 전달될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코로나19속에서 변화된 흐름에 따라 한발 앞서 나아가는 선덕 교육의 미래를 기대해 본다.

안전한 학교를 꿈꾸며

알기 쉬운 학교폭력 사안 처리

최현숙
제2기 학부모 기자



2019년 8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 이 법률은 피해 학생의 보호, 가해 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의 분쟁 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부분이 법률이라 다소 어렵지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두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폐지하고,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제12조제1항)

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도록 함.(제13조제1항)

다.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결과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제13조의2 신설)

라.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이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전담기구로 하여금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도록 함.(제14조제4항 신설)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업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①공정하고 신속한 사안 처리, 학교 행정 업무 경감 ②단위 학교의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적 해결 역량 강화 ③학교폭력 업무 지원체제를 구축하였다. 2020년 3월 1일부터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이 학교에서 각 교육지원청으로 확대되어 경상북도교육청은 위와 같이 각 교육지원청의 업무를 지원한다.

사안 처리 길라잡이
(학교용, 교육지원청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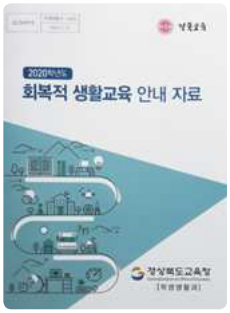
현장 중심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



선생님을 위한 학생지도 관련 법률 자료집



회복적 생활교육 안내 자료



※ 관련자료는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 /학생생활과/ 자료실(폭력 없는 학교만 들기 자료실 포함)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은 학교폭력 신고에서부터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을 위한 학교폭력 업무 지원체제를 구축하였다.

| 사안처리 흐름도 |

사전예방
- 학생, 학부모, 교직원 대상 예방교육
- 또래 활동, 체육·예술활동 등 예방활동
- CCTV, 학생보호인력 등 안전인프라 구축

관계회복
- 사안처리 전 과정에서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

사후지도
- 피해학생 적응 지도
- 가해학생 선도
- 주변학생 교육
- 재발방지 노력

초기대응
- **인지·감지 노력**
  - 징후 파악
  - 실태조사, 상담, 순찰 등
- **신고접수**
  - 신고접수 대장기록
  - 학교장 보고
  - 보호자, 해당학교 통보
  - 교육청 보고
- **초기개입**
  - 관련학생 안전조치
  - 보호자 연락
  - 폭력 유형별 초기대응

사안조사
- **긴급조치(필요시)**
  - 피해학생 보호
  - 가해학생 선도
- **사안조사**
  - 사안조사
  - 보호자 면담
  - 사안보고

학교장 자체 해결 여부 심의
- **전담기구 심의**
  - 자체해결 요건 충족 여부심의
  -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 서면 확인

요건 충족 / 동의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 미충족 또는 부동의

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심의위원회 개최
  - 조치 심의·의결
  - 분쟁조정
- **교육장 조치결정**
  - 학교장 통보
  - 피해·가해학생 서면통보

조치 이행
- **조치이행**
  - 피해학생 보호조치
  - 가해학생 선도조치
-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조치 불복
행정심판 / 행정소송

| 출처 교육부 |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정에서의 역할이 중요하다.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통해 어려운 점이 있는지와 교우 관계 등을 파악해야 한다. 가정의 분위기가 화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학교폭력의 사안은 경중을 판단하기 어렵다. 학교와 관계 기관은 더욱더 신중하게 학교폭력 예방 교육과 공정한 사안 처리를 해야 한다. 가정과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할 때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모두 아이들이 바르고 안전하게 자라기를 희망한다. 가정과 학교, 관계 기관들은 '우리 모두의 아이'를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소통하며 힘을 합치길 기대해 본다.



나눔 리더와의 인터뷰

성의여자고 박슬비 학생을 만나다.



김선주
제2기 학부모 기자

성의여자고등학교 2학년 박슬비 학생은 2020년 제19회 유관순횃불상을 수상하였다. 여러 가지 봉사활동으로 이미 지역에서 화제가 되었던 학생이다. 2012년부터 봉사를 시작하여 동아사이언스의 지구사랑탐사대, 다문화멘토링, 숲사랑소년홍보단 등 10개가 넘는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봉사활동으로 받은 수상 이력도 대단하다. 2015년 대한적십자총재 표창을 시작으로 2019년 대한민국인재상, 2020년엔 유관순횃불상에 이르기까지 봉사활동 관련으로 15개를 수상하였다.



Q. 최근 유관순횃불상에 선정됨을 축하드립니다. 유관순횃불상의 의미는?

A. 유관순횃불상 워크숍을 진행하는 2박 3일 동안 각지에서 온 다양한 친구들과 생활하고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유관순 열사님의 정신을 배우면서 '아,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워크숍만으로도 정말 좋은 경험이였습니다. 감사하게도 수상까지 하게 되어 저 자신을 더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시상금이 100만 원이었는데, 뜻깊은 돈이니만큼 소외계층과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기부를 결정하게 되었고, 담임선생님께 기부처를 추천받아 지역의 무료급식소에 기부하였습니다.

Q.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A. 형제자매가 없는 저는 어렸을 때 겁도 많고 매우 소심한 학생이였습니다. 2012년에 시작했으니 벌써 올해로 8년이 되는 것 같네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맞벌이로 항상 바쁘신 부모님께서는 저의 사회성도 키우고 1주일에 한 번은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찾으셨고, 그 결과가 '봉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시작은 현재까지도 우리 가족의 약속이 되었습니다.

Q. 봉사활동 중 기억에 남는 것은?

A. 가장 힘들었던 봉사활동은 2019년 2월 베트남에서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을 한 것입니다. 물론 아직도 추억을 되새길 정도로 행복했던 경험이지만, 정말 덥고 습해서 육체적으로 매우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가장 보람되었던 봉사활동은 문맹 어르신들과 함께한 한글 봉사입니다. 처음에는 한글을 모르셨던 할머니들께서 이제는 짧은 글이나 동화책을 읽으실 수 있게 되어 정말 뿌듯하답니다!

Q. 앞으로 자원봉사대회에 도전하는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A. 자신의 목표를 향해 꾸준히 노력하세요. 처음엔 그냥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을 꿈꿨을 뿐이었는데 자원봉사를 즐기면서 열심히 하다 보니 이렇게 수상의 영광도 맛보게 되네요. 다른 친구들도 긴장되는 학업에 부드러운 봉사를 적절하게 조절해가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원봉사대회에 참가하게 된다면, 수상 여부를 떠나서 정말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니 진심으로 활동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친구들과 좋은 생각들, 기발한 활동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Q. 개인의 삶에 있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다면?

A. 저는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표도 결국은 '행복'하기 위해서 아닐까요? 나를 위해, 남을 위해 행복을 준비하세요!

Q.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있다면 이야기해주세요

A.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중단되어있는 봉사활동을 코로나19가 종식되면 다시 활동을 재개하고, 학업도 열심히 할 예정입니다.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는 국민의 행복할 권리를 위해 함께 투쟁하는 판사가 되고 싶습니다.

넛지(nudge)는 '옆구리를 슬쩍 찌른다.'라는 뜻으로 강요에 의하지 않고 유연하게 개입함으로써 선택을 유도하는 방법을 말한다. 넛지[Nudge]의 의미처럼 부드럽고 조용하게 그러나 강하게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박슬비학생은 진정한 '나눔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구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었다. 앞으로도 더 큰 감동의 울림으로 청소년 자원봉사에 불씨가 되길 기대해 본다.





왜앵~선생님, 방에 불이 났어요.



왜관초병설유치원 원아들의 소방대피 훈련기

왜관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 7월 16일 소방대피 훈련을 실시하였다. 사전 활동으로 화재시 대피훈련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사후 활동으로 느낌을 이야기 나누고 경험을 그림으로 표현하였다. 아이들은 대피훈련이 끝난 후 “불이 났을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면 안돼요, 몸을 수그려야 돼요, 신발을 신으면 안돼요, 코와 입을 막아야 돼요 등을 말하며 진짜 불이 난 거 같아요.”라고 하였다.







학교에서 모심고 텃밭도 가꿔요.



옥곡초, 어린이 농부학교 시범학교

옥곡초등학교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학생들의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어린이 농부학교 시범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경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는 시범교육은 아이들이 농업을 주제로 한 원예활동을 통하여 미래의 건전한 소비자 및 창의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6월 3일 모심기를 시작으로 10월까지 텃밭식물가꾸기, 국화가꾸기, 꽃바구니 만들기 등 10회에 걸쳐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관내체험농장을 방문하여 보고, 듣고, 느끼는 현장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특히 옥곡초는 도심 속에 위치한 학교로 학생들이 체험하기 어려운 모심기, 텃밭식물가꾸기, 가을채소(배추,무,쪽파 등)를 직접 심고 가꾸며 관찰함으로써 아이들의 꿈과 희망도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운 말로 친구사랑 바른 말로 나라 사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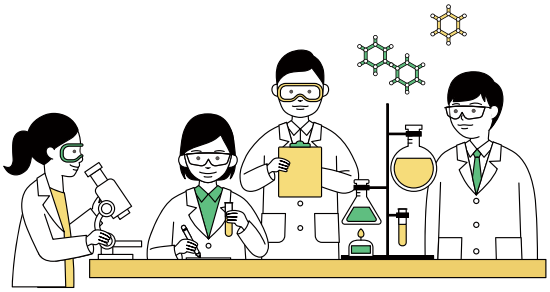


2020년 언어문화개선 실천 주간 운영

영천중학교(교장 김미라)는 '고운 말로 친구사랑, 바른 말로 나라사랑'을 표제로 언어문화개선 실천 주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언어문화개선 실천 주간에는 언어문화개선 캠페인을 시작으로 언어문화개선 대회(글짓기·표어·광고), 언어문화개선 체크리스트 작성, 관련 동영상 시청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특히, 등교시간에 실시한 캠페인에서는 '거친 말은 독이 되고, 고운 말은 덕이 된다', '내가 남긴 악플 하나, 상대방은 가슴 앓이'등의 표어가 붙은 홍보물을 나누어 주며 언어문화개선에 동참하고 지속적인 실천으로 폭언, 폭행, 따돌림 없는 모두가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다.



창의융합형 인재교육의 결실



함창고등학교 과학중점반 특허권 획득!

함창고등학교 3학년 과학중점반 학생들이 특허청으로부터 특허권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신연희 과학선생님과 3학년 김종현, 성현창, 이보윤 학생은 '감잎 발효물을 포함하는 항산화 효과를 갖는 기능성 식품 조성물' 이라는 발명의 명칭으로 특허출원하여 지난 6월 29일 특허청으로부터 특허권을 획득하였다.(출원번호: 10-2019-0165416)

우리 고장 상주는 삼백의 고장으로 특산품이 곶감이며, 가로수가 감나무일 만큼 많은 농가들이 감 농사를 짓고 있지만, 감잎은 대부분 버려지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꼈다. 이에 농약도 치지 않는 감나무 잎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던 중 감잎에는 유기산 카페인, 플라보노이드(항산화), 타닌, 칼슘, 칼륨, 비타민C 등의 성분이 들어있으며, 특히 음력 5~6월의 감잎에서 항산화 기능과 비타민 C의 기능이 강화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감잎의 기능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던 중 수업시간 발효실험을 떠올리게 되었고, 감잎의 발효에 관한 연구 자료를 찾았으나 관련 연구가 없음을 알게 되어 직접 연구를 하여 특허권을 따내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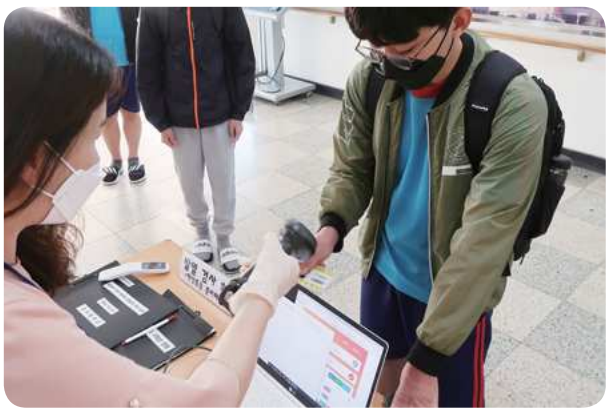






장곡중, 학생 소프트웨어 동아리가 만든 '발열 검사 확인 시스템' 운영





장곡중학교는 학생 1,049명, 교직원 90명의 과대 학교로 등교 시 발열 검사 관리 방법을 고민해왔다. 이에 소프트웨어동아리 담당 교사(강상희)의 제안으로 동아리 학생들과 원격 아이디어 회의를 통해 '발열 검사 확인 시스템' 개발을 시작하였다. 온라인 협업으로 5월 20일 '발열 검사 확인 시스템' 프로그램을 완성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등교할 때 학생들이 사회적 거리를 지켜 발열 검사를 한 후, 바코드 리더기로 학생증 바코드를 읽으면 정보가 서버에 전송되는 방식이다. 이후 바코드를 분실해도 발열 검사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선하고, 담임교사가 교실에서 휴대폰으로 각 반 학생들의 검사 여부를 관리할 수 있도록 웹페이지도 개발하였다.

프로그램을 개발한 임태현 학생은 "친구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어서 기뻤고, 개발하는 과정이 정말 재미있었습니다."라고 하였다.

3학년 부장 교사(이은미)는 "학생들이 교실에 들어오기 전에 발열 검사 결과를 휴대폰으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고, 첫 등교로 바쁜 가운데 학생 지도에 집중할 수 있어서 매우 효율적이었습니다."라고 하였다. 교장 선생님(장광수)은 "학교구성원 모두가 등교 개학을 철저히 준비하여 더욱 안전한 학교에서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시스템 개발에 큰 공헌을 한 박민혁(3학년), 배재현(3학년), 임태현(3학년) 학생은 장래희망이 모두 프로그래머로, 앞으로 대한민국 IT 강국의 역사를 이어갈 미래 인재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곡중학교는 2016년 '소프트웨어교육 선도학교'로 지정되어 지난 4년간 활발한 활동으로 성과를 이뤘으며, 2019년 12월에는 '소프트웨어교육 우수학교' 로 선정되었다.



학교도서관은 미래형 지식발전소



학교도서관을 미래형 지식발전소를 탈바꿈하기 위해 △ 학교도서관 현대화 사업 △ 학교도서관 RFID(무선식별시스템) 구축 △ 학교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 △ 학교도서관 마을 도서관 지원 △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 연계사업 등을 실시한다.

학교도서관 현대화 사업으로 선정된 20개교는 교수·학습환경 구축, 실내장식 등 시설개선으로 책을 가까이하고, 도서관에서 즐길 수 있는 미래형 학교도서관으로 탈바꿈한다. 또한, 5개교에 자동화 시스템은 자동대출 반납기, 도난방지시스템, 회원증 발급시스템, 책 리더기 등 학교도서관 자료관리와 서비스 향상으로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대출, 반납, 검색 등을 가능하게 하여 도서관 이용의 편의성을 높인다.

2008년부터 공공도서관이 없는 읍·면 단위 농어촌 지역에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도서구입,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초등학교 15개교에서 학교 내 마을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경북교육청, 경북도청, 해당 시·군과 연계하여 방과 후에도 지역주민에게 도서관을 개방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아울러 17개 공공도서관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학교도서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도서관 운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 학교도서관 담당 교사, 학생·학부모 자원봉사자 교육 등을 하고 있다.

공부하는 교사
경상북도독도교육실천연구회



평소 독도교육에 관심이 있었던 교사들이 뭉쳤다.

식물 분포상으로 우리 땅임을 찾아내어 홍보하는데 활동 중점을 두고 지난 5월 11일 (월) 세명고등학교 세미나실에서 10여명의 회원들은 울릉도와 독도 특산 식물 발표와 신흥중 박종환 교감이 독도동아리 운영 사례를 발표하였다.

특히 이날 모임에서는 '독도의 이름을 찾아라'등 다양한 탐구 활동을 통한 독도동아리 지도발표로 회원들과 공감하며 학생지도 사례들을 공유하였으며 울릉군·독도 명예주민이 되자고 제안하기도 하였다. 최근에 독도재단에서 발간된 '독도 알아야 지킨다'라는 책자 뿐 아니라 다양한 독도 관련 도서들을 공유하는 등 실제적인 독도동아리 지도 사례를 통해 학생들의 독도교육과 건전한 동아리를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덕분에 챌린지....

학생과 교직원이
코로나19로 애쓰시는 모든 분께 응원과 감사를 전합니다.



옥계동부초


청천초등학교



원호초등학교


성창여자고등학교


대동초등학교


문명고등학교


고령교육지원청



고교학점제

고교학점제는 학생 개개인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교과목을 스스로 선택하여 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고교학점제 이런 특징이 있어요.



교육과정

고교 3년간 이수해야 하는 총 학점이 정해지고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학점과 학생이 자유롭게 선택 가능한 학점을 제시합니다.



평가제도

성취기준에 근거하여 평가하고 정해진 성취 수준에 미달한 경우 학업 보충 기회를 제공, 이를 통해 학생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졸업제도

출석 일수를 기준으로 다음 학년으로 진급 또는 졸업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이수한 학점 기준으로 졸업을 결정합니다.

고교학점제 도입 후 학교 생활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학점제형 교육과정 적용

·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해 진로 및 학습 수준에 따라 영역별 단계별 선택이 가능한 교육과정으로 개정 및 적용

과목 선택권 확대

· 과목 개설에 대한 학생 수요 적극 반영
· 교사 및 강사가 부족한 학교 간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개설로 학생 학습 기회 보장 및 과목 선택권 확대

학교 밖 학습경험 인정

· 지역사회 연계 등 학교 밖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

전 과목 성취평가제 도입

· 전 과목 성취평가를 통해 실질적 과목 선택권 보장

학점제형 학교 공간 조성

· 가변형 교실 조성으로 충분한 교실 확보
· 학생 선택교과의 특성과 수업 기반을 반영한 공간의 구조화
· 공강시간 학생 자기주도적 활동 공간(홈베이스, 도서관 재구조화) 마련

고교학점제 이렇게 운영됩니다.

다양한 과목개설
학생맞춤형 과목 개설 준비

진로·학업설계
진로설계 및 학습계획 수립

수강신청
수강 희망 과목 신청

이수/미이수
미이수 시 보충 프로그램 제공

학생 평가
과정중심평가, 성취평가제 적용

학점 취득
과목이수 및 학점 취득

졸업
학점 기준의 졸업요건 설정

우리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과목은 어떻게 하나요?

학생 학습선택권 확대 지원

학교내 선택 중심 교육과정

학교내 학생 수요에 따른 다양한 과목개설 추진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학교내 개설이 어려운 과목은 인근학교와 공동으로 개설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공동교육을 통해 어디서나 희망 과목을 수강

학교 밖 학습경험 확대

지역대학, 지역사회기관 등과 연계한 다양한 학습기회 보장



고교학점제 단계별 도입 일정

도입 기반 마련 (2018~2021년)
- 2015년 개정 교육과정 현장 안착
- 2019년 고1 진로선택과목 성취평가제
- 2020년 마이스터고 학점제 우선 도입

제도 부분 도입 (2022~2024년)
- 2015년 개정 교육과정 일부개정
  ※ 2020년 일부 개정고시 ➜ 2022년 고1 적용

본격 시행 (2025년~)
- 차기 교육과정 개정
  ※ 2022년 개정고시 ➜ 2025년 고1 적용
- 2025년 전 과목 성취평가제 시행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선도학교 운영

연구학교
- **영주** : 대영고, 영주여고
- **예천** : 경북일고
- **안동** : 안동고, 한국생명과학고
- **구미** : 인동고, 금오공고
- **김천** : 김천생명과학고

선도학교
- **울진** : 한국원자력마이스터고
- **영주** : 영광고
- **안동** : 안동여고
- **영덕** : 영해고
- **구미** : 구미전자공고, 사곡고
- **포항** : 포항제철공고
- **경주** : 경주고
- **경산** : 문명고
- **칠곡** : 북삼고

아직 진로를 정하지 못한 학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담임교사와 진로전담 교사가 진로 상담, 진로 탐색 활동, 진로 심리 검사 등을 통해 학생의 진로를 정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은 자신의 흥미와 관심 분야를 토대로 학업을 설계하고 선택한 과목을 이수하는 과정을 통해 진로를 보다 깊이 고민하고 구체화 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자신의 적성 진로와 관련이 있는 과목만 신청해도 되나요?

'모든'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졸업을 위하여 필요한 총 이수 학점 중 학생이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하는 필수이수과목(학점)이 있으며, 필수이수학점을 제외한 범위 안에서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습니다.
※ 총 이수과목(학점)=필수이수과목(학점)+선택이수과목(학점)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교과목별 최소성취수준에 도달하지 못해 미이수가 되는 경우 개인별 맞춤형 학습지도, 수준별 과제 등의 보충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학생마다 수업 시간표가 달라지는데 수업 사이에 비는 시간은 어떻게 활용하나요?

홈베이스에서 토의·토론 및 소그룹 활동을 할 수 있으며, 학교 도서관의 역할을 확장하여 다양한 규모의 그룹이 학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됩니다.

특성화고등학교도 고교학점제를 실시하나요?

특성화고등학교 역시 고교학점제를 시행하여 적성과 흥미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여 배울 수 있습니다.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중학교 과정 중, 한 한기 또는 두 학기 동안 지식·경쟁 중심에서 벗어나 참여형 수업을 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체험활동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나를 공부하자 자유학기제

'나'는 학생, 교원, 학부모 모두를 포함합니다.

학 생 자신의 미래를 위해 적성과 소질을 찾아가는 자기주도적 노력의 과정을
교 원 조금 더 좋은 수업과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며 연구하는 과정을
학부모 학교를 믿고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세부적인 평가로 개개인의 성장을 도와줍니다.



자유학기에는 모든 학생이 동시에 주어진 정답을 고르는 지필 평가 위주의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평가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평가 결과는 점수로 표기되지 않고 문장으로 기술되며, 더 세부적인 평가가 이뤄집니다. 줄 세우기식의 결과에 치우친 평가로는 학생이 수업을 통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는지 등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학습 방법을 진단하고 지원하기 어렵습니다. 자유학기에는 학기 내내 지속적으로 학생 개인의 성장과 성취에 주안점을 두는 과정중심 평가를 실시합니다.

| 과정중심평가란? |

수업 속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어느 정도로 잘하고 있는지를 관찰하여 활동 내용·성실성·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토론, 역할극,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구술, 실험·실습, 융합 수업 등 다양한 학생 참여형 수업과 연계되어 이루어집니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성취기준을 바탕으로 평가 기준을 만든 후에 수업을 진행합니다. 학생들은 자신이 어떤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지 미리 알고 있는 상태에서 평가를 받게 됩니다. 학생의 성장과 발달과정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우수한 점을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직접 체험하고, 더 잘 배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유학기 활동은 교과 또는 범교과 영역과 연계하여 학생들이 직접 보고 체험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역량을 키우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과 수업뿐만 아니라 교내외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하고 싶은 것과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본인 스스로 알아가는 과정이 바로 자유학기 활동인 것입니다.

관심 있는 주제를 깊이 탐구하고, 열띤 토론을 하는 수업은 마치 거대한 블록쌓기처럼 진지하고 순수한 몰입을 느끼게 합니다. 학생들은 이러한 수업을 통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소통하며 협력하는 방법을 알게 되며, '자유학년 운영'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원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운영합니다.

학교별로 학생들의 관심 분야, 선호 프로그램, 만족도 등에 대한 조사 결과와 학교의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활동 중심 프로그램을 4가지 영역(주제선택 활동, 체육 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탐색 활동)으로 구성하고, 학생들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하여 반을 배정합니다. 일부 프로그램의 몰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희망하는 활동을 여러 분기로 나누어 운영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은 2020학년도부터 중학교1학년을 대상으로 자유학년제를 운영합니다.

활동 결과를 문장으로 꼼꼼하게 기록합니다.



자유학기를 이수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생활기록부의 자유학기 활동영역(주제선택, 예술·체육, 동아리, 진로탐색)에 참여도, 활동내용, 태도 등을 문장으로 기록합니다.

| 김자유 학생의 생활기록부 예시 |

학년	학기	자유학기 활동 상황		
		영역	시간	특기사항
1	1	주제선택 활동	68	(생활 속 공예)(34시간) '성적과 행복지수'에 관한 프로젝트 활동에서 설문을 제작하고 수집하여, 그래프와 도표로 표현하고, 자료료의 해석 및 분포의 특징을 잘 설명함. 생활 속 문제를 통계적으로 해석하는 문제 해결 활동을 좋아함.
				(스마트 폰 앱 제작(34시간) 엔트리를 활용한 앱 제작활동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였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는 등 소프트웨어적 사고력과 끈기가 우수함.

Q1. 배우는 내용이 줄어들지는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과시간에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꼭 배워야 할 내용을 학습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집중합니다.

지식은 인터넷 등을 통해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학기에는 교과를 재구성하여 단순 암기나 지식을 요구하는 것은 축소하고, 탐구할 수 있는 주제에 관해 토론하거나 교과 간 융합을 통한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 과정에서 선생님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 주변 지식은 스스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안다는 말이 전혀 낯설지 않죠?"

Q2. 수업시간에 주로 무엇을 하나요?

"교과시간에는 교과에서 꼭 배워야 할 내용을 배우고, 자유학기 활동시간에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소질과 적성을 기릅니다.

아이들은 수업시간에 사용할 자료를 찾아 정리하고,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발표도 하며, 다른 친구들 발표하는 것도 평가하고, 서로 다른 점도 찾아봅니다. 예전처럼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보지는 않으므로, 자유학기는 '노는 학기'라고 오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자유학기는 오히려 아이들이 제대로 배우면서 진짜 공부를 하는 시간이 아닐까요?"

Q3. 학년이 올라가면 시험은 봐야하는데 괜찮을까요?

"이제는 문제를 잘 풀어내는 것보다 남들이 접근하지 않은 방법으로 생각해 보는 아이디어가 중요해졌습니다.

익숙한 문제를 많이 풀게 하는 연습의 시간보다 오히려 익숙하지 않은 문제를 깊게 생각해 보는 사색의 시간이 더 중요해진 이유입니다. 아이들에게 사교육을 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시험을 잘 보게 하기 위한 것이겠죠? 이제는 학력이 아니라 역량을 요구하는 시대! 남과 다른 나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부모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요?

"'한국 학생들은 미래에 필요하지 않을 지식과 존재하지 않을 직업을 위해 하루 15시간 이상을 낭비하고 있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의 말입니다.

그의 말처럼 세상은 우리들이 지내온 20세기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행복하게 사는 부모의 모습을 통해 세상을 봅니다. 아이에게 모든 관심과 투자가 집중되면 아이도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맞이하게 될 새로운 세상에 함께 적응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행복한 아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 메이커교육관」을 소개합니다.



요즘 교육 트렌드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바로 메이커 교육인데요. 메이커(MAKER) 교육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길러주는 교육으로 이름 그대로 '만드는 사람'을 말하며, 메이커교육은 다양한 지식을 융합하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바탕으로 주어진 상황에서 사용가능한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해내는 교육입니다.

메이커 교육을 좀 더 쉽고 실생활에서 체험할 수 있는 교육관이 구미에 건립되었습니다.

체험과 교육이 동시 가능한 전국 최초의 메이커교육관 같이 가볼까요?

- **위치** : 경상북도 구미시 박정희로 155, 새마을테마공원 내 글로벌관
- **전화** : 054)716-01050~6
- **홈페이지** : http://www.gbe.kr/makercenter

• 공간구성

공간명	주요 내용	기능	공간명	주요 내용	기능
놀이체험	• 유·초등학생 대상 • 직접 만들면서 체험하는 공간	놀이중심 메이커활동	첨단기자재실	• 레이저커팅, 제봉 등	메이커 교육활동
탐구체험	• 아동·학생·일반인 대상 • 보고 만들면서 체험하는 공간	체험중심 메이커활동	전문가공실	• CNC 및 전문공작기계	목공 등 자재실
디지털교실	• 디지털 중심 메이커공작활동 (코딩, 3D프린팅 등)	메이커 교육활동	전자회로실	• 전자회로 공작, 납땜 가공	
목공교실	• 목공 중심 메이커공작활동	메이커 교육활동	스튜디오실	• 작품 촬영, 영상 편집	


지하주차장측 입구 전경


중앙 복도 전경


캐릭터 및 애칭 조형물


키움마루

• 운영 프로그램

1일 메이커체험교실

- 목공 중심, 소프트웨어 메이킹 중심, 피지컬 컴퓨팅 중심 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 당 20~30명의 학생이 1일 6시간 교육 활동을 수행
- 관련 분야의 지역 전문가로 강사 구성

메이커 탐구체험 프로그램

- 전시체험관을 활용한 메이커 체험프로그램
- Media, Art, Kinetic, Electronic Zone의 4개 영역에 30여 개의 체험 프로그램 운영
- 도전 과제 제시형 메이커 프로그램 운영 (외부 강사 활용)

주말 메이커체험교실

- 가족 메이커 교실
- 메이커 기초·심화 과정 운영 (토요일 6시간, 5주간 활동)
- 지역 기반 메이커 교실

교원 연수 및 역량 강화

- 메이커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단계적 연수 프로그램 운영
- 수요자 맞춤형 연수(10월~11월), 핵심 선도 교원 양성 연수 운영

경북 메이커 페어(경북 맹글 한마당)

- 메이커 관련 활동 산출물 전시 및 체험
- 메이커 관련 동아리, 교사, 단체 등이 참가, 전문가 강연 및 활동 발표회 등 세부 프로그램 운영
- 9월 운영 계획, 1만명 규모 개최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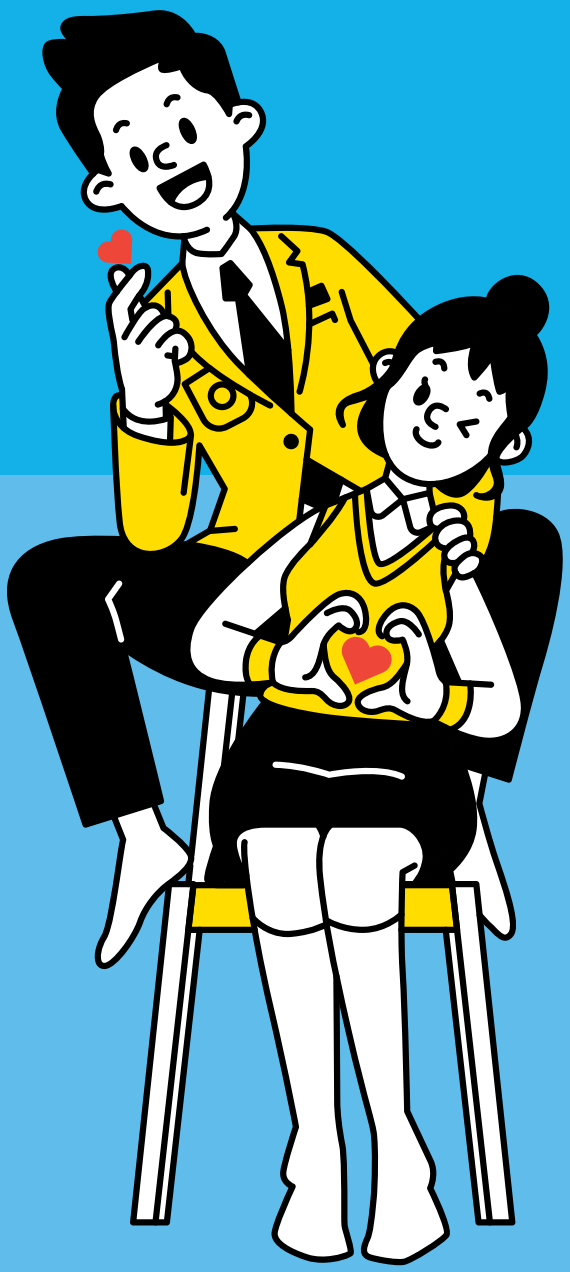

솜씨마루


1층 SW교실


목공교실


전문가공실

경북 학생 참여형 수업 이렇게 합니다



교육과정으로 수업을 설계합니다

핵심개념을 중심으로 학습의 질을 높입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핵심역량을 기르기 위해 교과 내 영역별로 소수의 핵심개념을 선정하고, 핵심개념을 중심으로 일반화된 지식과 기능으로 학습 내용을 구조화하였으며 이를 통해 핵심역량의 함양이 가능한 교수·학습과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조합니다.

교육과정으로 수업 설계 시, 교육 내용의 구조를 이해하고 설계해야 합니다.

- **핵심개념** : 교과가 기반으로 하는 학문의 가장 기초적인 개념이나 원리
- **일반화된 지식** : 학생들이 해당 영역에서 알아야 할 보편적인 지식을 명제적 지식으로 진술할 것
- **기능** : 학습 후 학생들이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능력 또는 도달점

학생 참여형 수업으로 실천합니다

학생 참여형 수업은

존중·공감·소통의 교실문화를 기반으로, 수업의 전 과정을 통해 학생의 배움을 일으키는 학습활동(사고, 토의·토론, 체험 등)이 중심이 되는 수업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공감하며, 소통하는 교실문화

- 함께 배우고 더불어 성장하는 대상으로 생각하기
- 학생의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차이 인정하기
- 학생 상호 간의 대화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기
- 학생의 자율성과 주도성 격려하기
- 학생의 생각에 귀 기울이기





과정중심으로 평가합니다

성취기준에 기반을 둔 평가
교과 성취기준에 기반을 둔 평가입니다.

수업 중에 이루어지는 평가
수업 중에 이루어지는 평가로서, 교수·학습과 연계된 평가를 지향합니다.

수행 과정의 평가
지식·기능·태도가 학습자에게서 어떻게 발달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학습자의 수행 과정을 평가 대상으로 합니다.

지식·기능·태도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평가
지식·기능·태도의 인지적·정의적 영역까지 포함,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평가 방법의 활용
평가의 목적이나 내용을 고려하여 다양한 평가 방법을 활용하여 학생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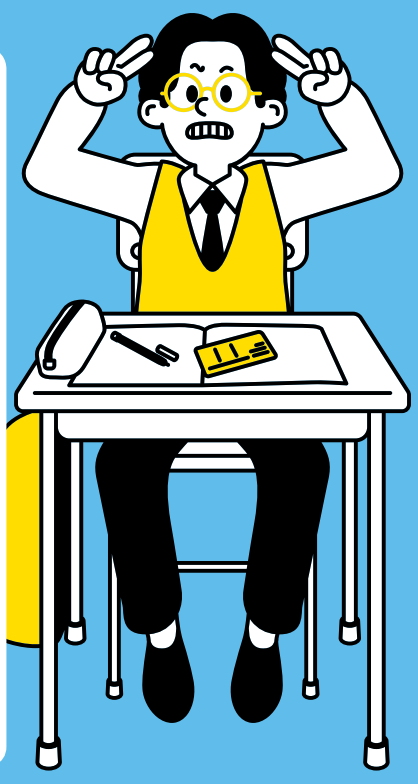
학습자의 발달을 위한 평가 결과의 활용
학습자의 성장과 발달과정을 관찰함으로써 학습자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우수한 점을 심화·발전시킬 수 있도록 돕는데 기여합니다.

새로운 수업 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합니다.

자율과 협력으로 교육공동체의 집단 지성을 모으고, 수업을 나누고 함께 배우며 새로운 수업 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협력	자율	나눔	배움
5분 수업 이야기	수업 들여다보기	수업 나눔의 날	수업 초대하기
매일 어때요? 차 한잔과 함께 매일 5분 이상 편안하게 수업이야기 나누기	**매일 한 번 쯤은?** 매주 하루 정도는 수업을 관찰, 분석하는 성찰의 시간 가지기	**매달 한 번 정도는!** 매달 1~2회는 수업대해 생각할 수 있는 나눔의 시간 가지기	**매년 3회 이상!** 1년에 3회 이상 자신이 연구한 수업을 공개하고 공유하기
• 1:1 수업이야기 • 1:여럿이 수업이야기 • 수업 일지 써보기	• 내 수업 촬영하기 • 수업 관찰, 분석하기 • 내 수업 성찰하기 • 심층 수업 컨설팅	• 교내 수업 공개·참관 • 수업 전문가 수업 보기 • 학교 안팎에서 수업 관련 활동하기	• 연구수업 공개 • 배움이 있는 수업협의회 • 수업나누리 활용



'칭찬합니다' 캠페인



행복한 학교만들기 시리즈로 아낌없이 칭찬하자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일선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미담 사례가 있으면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힘내라 학교, 힘내라 경북교육!

포항장성고등학교에서 근무하시는 윤동식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포항장성고등학교에서 당직근무를 하는 윤동식입니다.

예년의 경우였다면 이제 갓 입학을 한 새내기, 방학을 마친 재학생들이 새로 만난 친구들과 뒤엉켜 온 교정이 떠들썩할 즈음인데, 지금은 조용하다 못해 적막하기만 합니다.

그래도, 교내 이곳저곳에는 학생이 없어도 예년과 다름없이 각자 자신의 모습을 뽐내고 있습니다. 진달래가 그렇고, 벚꽃, 목련, 라일락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길만 가는 무심한 꽃들과는 사뭇 다른 장면이 연일 연출 되고 있습니다.

이제나저제나 오매불망 학생들을 기다리시는 선생님들 모습입니다.

매일 아침 7시에 개방되는 출입문 앞에서 문 개방을 기다리던 학생들 대신, 그 자리, 그 시간에 선생님들이 기다리며, 문이 열리자마자 연구실로 올라가셔서 기다림보다 더 알찬 만남을 준비하십니다.

교장 선생님(이승수 교장 선생님)은 누구보다도 먼저 출근하셔도 곧바로 집무실로 향하지 않으시고 교정 곳곳을 둘러보시고 학생들이 등교할 때의 시선으로 어루만지신 연후에 집무실로 향하십니다.

이렇듯, 학생들이 등교하는 날보다도 더 바쁘게 학생들을 맞을 준비에 여념이 없으신 선생님들의 모습이 저에게는 마치 구도자의 간절한 기도 행위로 보입니다.

학교 오기를 꺼리던 학생들도 학교 오고 싶어 안달이 난다지만, 말썽부리던 학생들의 성화에 신물이 났을 법도 한 선생님들도 이렇듯 학생들과 부대끼는 일상을 그리워함이 바로 스승의 사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의 이 시련이, 우리가 한반도 가보지 않은 터널 속을 통과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고, 우리 학교가, 우리 교육이 그렇습니다. 터널 속은 캄캄합니다. 혼자서는 누구도 무사히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무턱대고 달리다가는 옆 사람이고 벽이고 부딪칠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를 때는 단 한 가지 방법, 우리가 모두 서로 손을 꽉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어느 누가 구령을 부처 주변 그 구령에 맞춰 한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내딛다 보면 반드시 우리를 인도할 밝은 빛이 보일 것입니다.

오늘의 질곡에서 무사히 빠져나오는 날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의 모든 학생으로부터, 모든 학부모로부터, 모든 국민에게 무한 신뢰를 받는 선생님이 되어 계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포항 장성고등학교 이승수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모든 선생님, 경북의 모든 선생님과 교육을 책임지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매달 11일은
경상북도교육청 상호존중의 날입니다.
'11'의 의미는 서로 동등하게
상호존중하고 배려한다는 뜻입니다.
(1=1)

함께 실천해요

서로 존댓말 사용하기
올바른 호칭 사용하기
먼저 웃으며 인사하기
칭찬 주고받기

{ 함 께 해 요 }

함께하는 경상북도교육위원회

제314회 조례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심사



제314회 임시회 기간인 3월 26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조례안, 동의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였다. 먼저, 의원 발의 조례로 조현일 의원(경산)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내실 있는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도내 학생들의 심신 수련 및 조화로운 성장·발달을 도모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의 성장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다. 이 외에 교육감이 제출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경상북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모두 원안 가결하였다.

또한, 학교 방역·위생, 학습지원, 교육과정 운영, 돌봄 등 경북교육청의 신학기 개학 준비에 따른 코로나19 예방 대책 추진 상황을 보고 받고 다양한 의견 교환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 대응책을 함께 고민하였다.

제315회 조례안 등 7건 심사 의결 및 1차 추경 경정 예산(안)



제315회는 5월 7일 제1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조례안 6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을 심사 의결하였다. 먼저, 의원 발의 조례로 이선희 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지진재해에 대비한 학교 시설물 관리와 재난 안전교육·훈련의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로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여 원안 가결하였다. 5월 11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0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4.5%인 2,076억 원이 증액된 4조 7,837억 원으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분야,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 지원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에 대해 교육위원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제316회 경북교육청 2019년도 결산심사

제316회 제1차 정례회 기간인 15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예산현액 5조 7,077억원 규모의 2019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의결하였다. 한편, 이날 결산 심사에 앞서 '경상북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과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다.

경상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출범식 개최



조현일 위원장(경산)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합니다.



박미경 부위원장(비례)



권광택 위원(안동)



김희수 위원(포항)



박용선 위원(포항)



배한철 위원(경산)



안희영 위원(예천)



정세현 위원(구미)



최병준 위원(경주)

경상북도교육청 SNS에 놀러오세요.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채널

